

#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정 봉 근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bchung@moe.go.kr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뉴라운드에서 서비스시장의 개방 협상이 임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이 과연 WTO의 개방과제에 속할 정도로 국가간 교역과 투자의 대상인가?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교육은 국가간에 피교육자가 이동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교육기관이 이동해서 제공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학생들이 선진국에 가서 받는 교육은 전자에 해당되어 우리 국민의 교육서비스 수입(輸入)이 되는 것이다. 또 외국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들의 대한(對韓) 직접투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WTO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육기관이 국경을 넘어 외국에 직접투자를 할 때 무슨 걸림돌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하여 양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외국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으

로 비영리 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이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성인교육의 경우에도 기술학원, 언어학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것조차도 극력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반대 논리는 대략 두가지다. 하나는 교육을 어찌 시장의 상품과 같이 「교역의 대상물」로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대학·성인교육의 수준이 외국과 경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옛부터 교육주권이니, 국적있는 교육이니, 교육의 백년대계니 하여 교육을 전통적인 고유의 것으로 간주해 왔다. 또 이를 꽤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아마도 유교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랬을

우리 학생들이 비싼 돈을 내고 유학을 감으로써 선진국의 발전된 지식을 습득한다. 즉, 외국의 교육서비스를 「사고」 있다. 또한 중국·동남아·유럽·미국 등지의 적지않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금을 내고 우리 교육을 받고 있다. 그들도 우리의 교육서비스를 「사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엄연히 교역의 대상물인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교육서비스를 교역의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비싼 돈을 내고 유학을 감으로써 선진국의 발전된 지식을 습득한다. 즉, 외국의 교육서비스를 「사고」 있다. 또한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지의 적지않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금을 내고 우리 교육을 받고 있다. 그들도 우리의 교육서비스를 「사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엄연히 교역의 대상물인 것이다. 또 세계 주요국들은 국경을 넘어 교육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교육, 경영교육, 언어교육 등을 위해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과 대학원 설립을 위한 투자는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성인교육, 직업교육 성격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지식기반경제가 도처에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개방해도 별 탈이 없고 또 양질의 경쟁자가 들어온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것이 없지 않으나, 세계 일류의 인력양성을 위해 우리는 좀더 과감하고 자신있는 개방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하나의 교육개방 반대 논리는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경쟁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잘되는 국가들을 보면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일수록 외부로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우리의 대학·대학원 교육이 취약하다면 외국의 일류대학을 영입해서라도 이 나라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들 교육의 질과 가치가 우리 국내대학·대학원보다 낫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만큼 유리할 것이요, 우리보다 못하다면 그 외국기관은 이 땅에 와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인교육 분야

가 취약하다면 이 부분도 개방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주요 경쟁국들을 앞서고 있는 면도 있다. 학습지 서비스, 보충수업학원, 언어학원, 면허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손색이 없다.

개방해도 별 탈이 없고 또 양질의 경쟁자가 들어온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것이 없지 않으나, 세계 일류의 인력양성을 위해 우리는 좀더 과감하고 자신있는 개방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

## 특집

###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서 인적자원분야의 중요성과 정책과제 / 강일규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서 중국 전문가 양성 방안 / 홍원일
- 동북아 중심 국가의 노동력구조와 협력의 방향 / 설동훈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적자원 개발방안 / 전영평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 최성수